



황도희 문화예술단, 설 명절 성금 100만원 쾌척

민족 고유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 군산시에 이어지면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16일 황도희 문화예술단(단장 황도희)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황도희 문화예술단은 황도희 노래교실에서 흥이 많고 문화예술인으로 발돋움하기에 손색없는 22명을 선발 구성해 트로트, 신파극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 복지시설 등에 방문해 공연 재능기부를 하며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단원들의 공연 활동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되었으며,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담아 전달되었다. 군산시는 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황도희 단장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현석 복지환경국장은 “황도희 문화예술단의 따스한 손길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문화예술단의 나눔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일윤 임실군의원, 대리마를 주민 감사패 수상

정일윤 임실군의원원은 신평면 대리마를 총회에서 군과 신평면 대리마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리마를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 의원은 군민을 가족처럼 섬기며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대리마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을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직자가 의원에게 드리는 “존경과 신뢰받는 임실군의회의 의원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양성평등정책대상 의정부문에서 “여성신민권전국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일윤 의원은 “지난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에 이어 새해 시작부터 마을주민들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된 이 모든일은 군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 주신 덕분”이라며,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운영 전산교육

남원시는 원활한 목욕비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16일, 23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바우처카드 운영 전산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농협 비즈플레이(주) 사업단주관으로 바우처카드 대상자 등록 절차 및 카드사용 절차, 재발급 등 절차별 전산 처리 과정을 실습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신청은 70세 이상 남원시에 주소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2월 3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올해 70세가 되는 1955년생 신규대상자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1분기에 3월생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4월 생부터는 각 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전산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바우처 가맹점(목욕업소)을 안내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학습성과 나눔

군산형 행복학습센터, 학습자들 폐품 업사이클링 생활용품 판매수익금 보육원에 기탁

군산형 행복학습센터가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주민들의 학습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 16일 월명초북빛홀씨 행복학습센터 학습자들은 수익금 40만 원을 군산 삼성아육원(원장 최규라)에 기탁했다. 다성금은 2024년 업사이클링 가치창출 과정을 통해 직접 만든 폐품 업사이클링 생활소품을 판매해 마련했다. 군산형 ‘행복학습센터’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면 마을 특성과 문화유산·역사·관광자원 등을 주민 실생활에 연계시킨 평생학습 사업이다. 특히 소독항상·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에서 파견과 학습예산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 작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학습 기회가 적은 농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오식도동의 다문화 가족과 주민들을 위한 ‘살림전문가’ 과정 △월명동 상인들의 시니어 버리스타 과정 △월명동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한 ‘업사이클링’ 과정 △신영동 시장상인들이 공



설시장 나무에 겨울옷 입히는 ‘겨울환경 꾸미기’ 과정 △소통동 어르신들의 ‘미용기술 배우기 과정’ △개정면 농촌 어르신들의 ‘가죽공예 과정’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6개 행복학습센터 수강생들은 학습을 마친 뒤에 재능기부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수익금을 261만 원을 모금했고,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 기탁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무주 덕유산리조트 소방안전 점검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를 방문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곤돌라 및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명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본부장은 이날 △무주 덕유산리조트 내 티볼호텔의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 점검 △투숙객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자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곤돌라, 리프트 등 주요 시설 현장 시찰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시설의 구조 안전대책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북소방은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삭도설비는 총 17대(케이블카 3대, 곤돌라 1대,



리프트 13대)가 운영 중이다. 전북소방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구조장비 2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관 등과 복지안전 119앱 보급 협약 체결

남원시는 16일 시민의 안전과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남원시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협회와 남원 복지안전 119앱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앱 보급과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목적이 있다. 앱은 △긴급구조 119 △도움 요청 △안전 신고 △안전 지도 △안전 수칙 등 5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620-6882~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돈협회 김제, 다문화가정 등에 한돈 400kg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지부장 김락기)가 지난 15일 주변의 어려운 아동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돈 400kg(2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은 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많은 드림스타트,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는 수년간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연대감을 높이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락기 김제지부장은 “물품 기탁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되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과 다문화 가정에게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향교동 새마을지도자협, 멸치 29박스 기부

남원시 향교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회장 윤만호, 정금)는 지난 13일, 동에 멸치 29박스를 기부하였다. 협의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에 직접 방문하며 안부의 말과 멸치를 전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나눔은 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협력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준비했으며,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실천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권혜정 향교동장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항상 따뜻한 마음의 손길을 펼치는 주민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나눔문화 확산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16일 김제시의회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5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백현 의장과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김미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제지구협의회 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기타 위기가정 맞춤 지원, 자립준비청년 생필품 전달,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서백현 의장은 “재난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적십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제시의회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주상 완주소방서장, 삼례119안전센터 방문 소통

완주소방서 이주상 서장은 16일 삼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며 안전센터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서장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안전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 겨울철 화재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 서장은 “삼례119안전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으로,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완주=열재복 기자

전북가설 운영권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남원시는 지난 13일, (유)전북가설 운영권 대표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운 대표는 남원시 주생면 출신으로, 전주에서 건축자재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금이 지역경제 양성을 위해 투명하고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꾸준히 기부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남원시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에 사용하며 남원 지역 발전의 디딤돌을 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노암동 뉴마트타운, 라면 30박스 등 기탁

남원시 노암동은 관내 뉴마트타운(대표 김경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라면 30박스, 화장지(30롤) 4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나눔을 실천한 김경주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으며, 이에 차미화 노암동장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